

김연철 ‘막말’·문성혁 ‘자녀 특채’ 의혹 공방…박양우 ‘무난’

통일부·해수부·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토위 최정호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불발…내일 개최

국회는 26일 해당 상임위원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연철 통일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격이 쏟아졌으나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검증 위주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국회 외교통일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과거 SNS ‘막말’ 시비와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 이념편향성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박완자 씨 피격은 통과의례”, “남한의 NLL(북방한계선) 고수가 철회돼야 한다”, “(천안함 사건

의 후속 조치인)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검증 위주 질문을 이어가며 김 후보자를 엄호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내정 철회를 요구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이념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자격 미달’이라고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공격을 예상한 듯 청문회 시작부터 “다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분들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 “부적절한 표현을 깊이 반성한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으나, 야당은 비판적 추궁을 지속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장관이 되기에 턱없이 자질이 부족하다. 세상을 향해 내뿜는 연사가 거칠고 분노에 차 있다. 육설에 가까운, 육성으로 옮기자 민망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저질 발언에 육설에 가까운 경박하고 천박한 연사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다” 등과 같은 발언은 경계망동이고 지나치게 북한 편향 인식을 가진 것으로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위해 기준 7가지 중 어디 하나에도 해당 안 되는 깨끗한 후보로, 전문성을 볼 때도 남북관계를 이렇게 투철하게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김 후보자 부인의 다

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채용 의혹이 쟁점이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장남이 적은 분량의 자기소개서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인영여 성적표를 제출했음에도 한국선급에 합격했다며 채용특혜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의혹 제기”라며 문 후보자를 엄호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한국선급은 공인영여 성적표 미제출자와 유효기간 만료자 전원에게 1점을 부여했다”며 “문 후보자 장남의 서류전형 점수는 81점인데, 80점을 받은 4명이 탈락했다. 즉,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인영여 성적표로) 1점을 받아 합격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후보자가 장남의 채용 절차 기간과 수습을 마치고 정규직원이 될 때 한국선급을 방문했다”며 “또한 문 후보자의 대학 동기자 친구가 면접 위원 아니었나”라고 따졌다.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 장남의 졸업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간 큰 충돌 없이 정책질의 위주의 비교적 차분한 검증이 이뤄졌다. 박 후보자도 별다른 실수 없이 답변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게 청문회 전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줬다. 우상호 의원은 “자녀 예금과 관련한 의혹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둘째 딸의 경우 연봉과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예금을 모으기 어려웠을 것이라 지적이 있

다. 증거가 포함된 것 아닌가”라며 박 후보자의 해명을 유도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 역시 “위장전입, 소득세탈루, 증여세 문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다”며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게 있으면 좀 하시라”고 답변 기회를 줬다.

야당도 박 후보자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폭포 부동산 투기 의혹,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오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 필요성 일깨운 사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홍영표 의원실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드라이브 본격화… 보수야권 이견에 입법까지 험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공수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놓고 난항을 겪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일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도 민주당에 직접적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언급, “이 사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만이 권력형 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바른미래당과의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협상도 지지 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만나 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의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어 한다는 견해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

다는 입장을 각각 고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 쟁점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며 “오늘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과 이견에 대해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도부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 사개혁위에서 양당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앞장설지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 의원 일부 평화당 올 수도”

박지원 정계개편 가능성 언급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평화당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 자신도 (평화당으로 오려는 의원들과) 대화를 했다”며 “지금도 국회에서 조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가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

랙 지정 여부가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구 바른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발될 경우, 이를 명분으로 당내 호남 지역 의원들이 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제3지대 창당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반발 및 탈당 가능성이 커진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가시화된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당 대당 통합 및 제3지대 통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총선 공천·경선 준비 돌입

공천제도가획단 첫 회의…권리당원 행사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및 경선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우선,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오는 8월1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 권리당원으로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4개월 동안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2020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26일 첫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등을 확정했다.

기획단은 우선 권리당원 행사 시행일

을 2020년 2월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1일에서 2020년 1월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한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획단은 또 일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과 공천심사·경선 방법을 마련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변화가 생성 등을 고려해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단의 2차 회의는 4월 4일에 열린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동, 신병적응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 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상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경 매

- ★ [공장]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토지:3441,1㎡(1040,9평) 건물:1361,5㎡(411,9평)
감정가 16억8천6백만원 최저가 16억8천6백만원
- ★ [근린주택]영광군 법성면 토지:708㎡(214,2평) 건물:266,61㎡(80,6평)
감정가 5억2천8백만원 최저가 5억2천8백만원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대지 25351㎡(7668,7평)전원주택단지적합
감정가 27억1천2백255만원 최저가(70%)18억9천8백79만원

- ★ [공장용지]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대지:11065,1㎡(3347,2평)
감정가 24억7천8백만원 최저가 19억8천3백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대지:1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정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정가 62억7천2백만원 최저가(70%) 43억9천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정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35억7천만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